

# 사우디, 미국산 LNG 수입 ... 시설 투자도 나서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사들인다. 미국 '셰일혁명'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도를 뒤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는 값싼 셰일가스를 발전용 등으로 쓰고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은 자국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보복관세를 매긴 중국을 견제하는 등 에너지 패권을 굳혀나갈 수 있게 됐다.

지난 2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전날 미국 셉트라에너지로부터 LNG를 연간 500만씩 20년간 사들이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이후 성사된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거래다.

아람코는 또 셉트라에너지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LNG 수출기지 '포트 아서 LNG' 1단계 사업 지분 25%를 사들이기로 하고 세부 협의를 하고 있다. 아람코는 "LNG시장은 세계적으로 매년 4%씩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거래는 미국의 셰일혁명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사우디는 미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해온 나라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오일·가스가 쏟아지면서 미국은 지난해 말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미국은 LNG 분야에 전 세계 생산 1위, 수출 4위다. 올해 수출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셰일 최대 산지인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가스 생산량은 지난해 이후 오일 생산량이 35% 증가할 때 43% 늘어났다. 아직 이런 가스를 실어나를 충분한 파이프라인이 없어 태워버리는 셰일가스량만 하루 10억 제곱피트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거래로 방치되는 가스를 수출할 기회를 갖게 됐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텍사스주 일대) 퍼미안 분지에서 아주 많은 천연가스가 나온다"며 "이를 미 동북부와 유럽에 보내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의 헤게모니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그동안 발전용 원료로 석유를 주로 써왔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최근 LNG 발전량을 대폭 늘렸다.

# 4월 신규 주택, 기존 주택 판매 감소

지난 4월 미국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후퇴했다. 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며 탄탄한 고용시장을 확인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3일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6.9% 감소한 67만3,00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3월 72만3,000건에서 줄어든 수치이고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 폭이다. 이로써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치고 6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2.8% 감소한 67만 5,000건으로 전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규 주택 판매는 7.0% 증가했다. 4월 판매된 신규 주택 중간가격은 34만2,200달러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주택 중간가격은 31만 4천 400달러였다.

4월 신규 주택재고는 5.6개월 치에서 5.9개월 치로 늘었다. 지난해 4월의 5.7개월 치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기존주택 판매량은 519만 채로 전월에 비해 0.4% 하락했다.

중간가격은 26만7,3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올랐다. 1년 전 대비 가격으로는 86개월 연속 상승세이다.

한편 미국의 고용시장은 강세를 이어갔다. 미 노동부는 이날 별도의 보고서에서 지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0건 감소한 21만1,000건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 경기는 후퇴했다. 시장조사기관 마킷(Markit)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PMI)는 50.6으로 4월 52.6보다 하락해 200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한다.

# 미국 기업들 설비 투자 크게 둔화 ... 무역전쟁 여파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미국 주요 대기업들의 올해 설비투자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들의 느려진 투자 움직임이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편입된 기업 가운데 올 1·4분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56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CAPEX)'이 전년동기 대비 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 증가와 비교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자본적 지출은 설비투자 과정에서의 자본지출로 미

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S&P500 기업 중 최대 자본적 지출을 기록했던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올해 지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6.5% 줄어든 46억 달러에 그쳤으며 애플 역시 43.7% 감소한 23억6,000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알파벳과 애플·AT&T·버라이즌 등을 포함해 지난해 '톱 10'에 들었던 기업들의 자본적지출은 지난해 407억 달러에서 올해 382억 달러로 줄었다.

WSJ는 "기업 경영진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지출둔화가 올 하반기나 내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러튼 / 라미라다 / 헌팅톤비치 / 부에나파크 / 실비치 / 스텐톤 / 로스알라미토스 / 파운틴벨리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브레아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 싸고 좋은 매물들을 로즈메리가 찾아드립니다!

**가든그로브 (콘도)**



방3/화3, 건평 약 1,760sf  
넓고 리모델링이 잘 된집  
2년된 새지붕  
**\$524,000**

**사이프레스 (콘도)**



방2/화2, 건평 약 1,000sf  
2002생 새집 같음  
아담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480,000**

**스텐톤 (콘도)**



방3/화2.5, 건평 약 1,270sf  
새 마루바닥  
공원같은 분위기  
**\$429,000**

**스텐톤 (콘도)**



방2/화 2.5, 건평 약 1,300  
2009년생  
완전 리모델링, 나무바닥  
**\$495,000**

**부에나 파크**



방 3/ 화2, 건평 1,690sf  
새마루바닥  
매력있게 단장된 집  
**\$600,000**

**라미라다**



방3/화2, 건평 약 1,320sf  
라미라다 골프장 한인마켓가까움  
새로 단장된 예쁜 집.  
**\$560,000**

**라미라다**



방5/화2, 건평 2,500sf  
리모델링된 집, 좋은학군  
**\$599,000**

**로스 알라미토스**



방3/화2, 건평 약 1,730sf  
최신형인테리어,  
전기차 충전기, 최고학군  
**\$829,000**

**파운틴 벨리(콘도)**



방3/화 2.5, 건평 1,650sf  
새 카펫, 이중창문  
쾌적한 주변환경, 최고학군  
**\$600,000**

**코스타메사(타운홈)**



방3/화 2.5, 건평 약 1,650sf  
예술적인 세련된 집  
**\$649,000**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714.334.2292**  
O.714.537.1111  
realtorrosemary3819@gmail.com

\* 팔고 사는 집, 언제나 신중함과 성실, 인내로 모십니다 \* 학군 및 용자 상담 866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